대구광역일보

since 1996 28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2024년 1월 16일 화요일(火) | 제5350호

영천보현산별빛·영덕대게·봉화은어축제 흠런

2024 경북도 지정축제 최우수·우수등급 선정!

영천보현산별빛·영덕대게·봉화은어축제가 롱런 흠런을 시원하게 때렸다.

9회말 역전 흠런이다.

영천보현산 별빛·영덕대게·봉화은어측제가 경북도가 선정한 2024년 최우수·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축제가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한몫하고 있다.

▣ 봉화은어축제 '최우수' 선정

'봉화은어축제'가 도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은어! 은어와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연생태축제다.

청정 봉화의 맑고 깨끗한 내성천에서 벌어지는 은빛 은어의 향연!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 재미와 건강, 휴식이 있는 오감만족 축제로 알려져있다.

봉화군은 이번 선정을 통해 경북도로부터 9500만원의 축제 운영 예산지원을 받게 됐다.

봉화 은어축제만의 관광상품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 봉화은어축제'는 오는 7월 27~8월 4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대에서 9일간 열린다.

연령과 계층이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로 변화를 꾀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객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윤여성 문화관광과장은 "봉화은어축제가 경북도 '최우수'지정축제로 선정된 것은 봉화군민과 함께 만들어간 축제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내실있는 축제 기획과 운영으로 봉화은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영천시의 대표축제인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2024 경북도 지정축제 심사에서 6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경북을 대표하는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축제도 내실 있는 콘텐츠와 지역주민과 영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경북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평가한 결과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연 5500만원의 지원금(2년간 총 1억 1000만원)을 받는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매년 별보기 가장 좋은 10월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대에서 열린다.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주제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매력적인 '별의도시 영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화성에서 온 별빛, 영천으로 온 당신'이라는 구호로 추진됐던 별빛축제는 7만여 명의 인원이 현장을 방문했다.

온라인으로도 52만여 명이 별빛축제를 즐겼다.

밤하늘 별을 따라 신비의 우주속으로' 최고의 밤하늘과 아름다운 경관 등 풍부한 생태 문화 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천 보현산 자락에서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국립 보현산 천문대 등 천문·우주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한 순수 천문 · 우주 · 과학 체험 축제이다.

▣ 영덕대게축제

영덕대게축제가 경북도 지정축제 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

'영덕대게축제'는 오는 2월 29~3월 3일까지 강구 삼사해상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제27회 영덕대게축제' 주제는 '천년의 맛, 모두의 맛! 영덕대게'다.

천년을 이어온 왕의 진상품'영덕대게'를 모두가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연다.

추진 방향은 △참여하면 영덕대게를 꼭 맛보고 가는 축제 △역사와 스토리가 살아있는 특별한 축제 △친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ESG 축제 △대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 등 모두 4가지이다.

군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작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26회 영덕대게축제를 보완·강화하고 주요 프로그램도 이전 축제와는 차별화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존 대표 프로그램인 대게 경매, 영덕대게 낚시대회, 대게 싣고 달리기, 영덕의 전통놀이를 각색한 영덕대게 줄당기기, 대게탈인형 축구대회 등은 운영 횟수와 체험장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했다.

이번 대회에 더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

영덕대게 맛 체험, 사진 콘테스트, 스탬프 투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등을 신설한다.

영덕대게 맛 체험의 경우 일반적인 대게찜을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새로운 대게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대중화한다.

대게 원조마을인 차유마을 기원제와 영덕군 9개 읍.면 풍물단이 총출동해서 기량을 펼치는 강구대게거리 퍼레이드도 신명나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대게축제위원회는"영덕대게축제가 경북도를 넘어 전국에 알려 영덕 관광의 기폭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고 말했다.

▣ 경북도 대표 지정축제 14개 선정

경북도는 지난 10일 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2025년 2년간 경북도를 대표할 지정축제 14개(최우수 축제 2, 우수 축제 6, 유망 축제 6)를 선정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 축제는 △봉화은어축제(7월27~8월4일) △청송사과축제(10월30~11월3일)다.

우수 축제로는 △구미 라면축제(11월 중) △영천 보현산별빛축제(10월 중) △영덕 대게축제(2월29~3월3일) △영양 산나물축제(5월9~12일) △성주 참외&생명문화축제(5월16~19일) △울릉 오징어축제(8월 중)가 각각 선정됐다.

유망 축제는 △경주 벚꽃축제(3월 말)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5월3~5일) △의성 슈퍼푸드마늘축제(11월 초)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축제(9월15~17일) △청도 반시축제(10월 중) △울진 죽변항수산물축제(12월 중)가 뒤를 이었다.

도 지정 축제는 2025년까지 2년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축제 운영,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축제별로 최우수 축제 9500만원, 우수 축제 5500만원, 유망 축제 2000만원의 도비(총 6억 4000만원)가 매년 지원된다.

봉화은어축제

영덕대게축제

영천보현산별빛축제

▣ 미소(微笑)축제 선정

미소축제에는 △김천 김밥축제 △구미 도시숲 힐링페스타 △칠곡 꿀맥페스타 △영주 무섬외나무다리축제 등 9개의 축제가 선정됐다.

지역주민 중심으로 열리는 소규모 지역축제에도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지역별로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85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다.

△포항 국제불빛축제(5월31~6월2일) △고령대가야체험축제(3월31~4월2일)는 지난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바 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월2~10월6일) △문경찻사발축제(4월27~5월6일) △영주풍기인삼축제(10월 중)는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은하 기자

김재욱 칠곡군수 '주민과의 소통'

김재욱 칠곡군수가 12~19일까지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변화와 혁신을 알리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기산면, 왜관읍을 시작으로 8개 읍면을 돌아본다.

읍면 방문은 지역 현안과 주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올해 '청소년대상' 후보자 공모

대구시는 15, 16일까지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1989년 첫 포상 이후 올해 36회를 맞는 청소년 대상은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는 상으로, 현재까지 238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청장과 군수, 학교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 받은 청소년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천 부문은 선행효행, 창의인재, 푸른성장 등 3개다.

후보자 추천을 원하는 기관 등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 등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추고 2월 16일까지 대구시 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청송 산악스포츠 중심도시 전세계 알렸다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리드 부문 남녀 동반 '金' 메달 스피드 부문 남녀 동메달 획득

산악 스포츠의 중심도시 청송군에서 열린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산악문화 저변 확대는 물론,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윤 군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아이스클라이밍이 강국으로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리드 부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남녀 동반 금메달을 차지했다.

대한산악연맹과 국제산악연맹(UIAA)이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상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월드 랭킹 1~8위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이영건, 신운선 선수 등 총 16여개국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열띤 경기 결과 스피드 부문에서는 남자부 냠두 케를렌(몽골), 여자부 아네타 루제카(체코)가 1위를 차지했다.

리드 부문에서는 남자부 권영혜, 여자부 신운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명옥·이숙희 선수는 남·여 스피드부문 3위, 이영건 선수는 남자 리드 부문 2위에 올라 우리나라가 아이스클라이밍 종목 강국임을 한 번 입증했다.

권영혜 선수는 "리드 준결승 경기에서 8위로 가장 마지막 순위로 결승에 올랐는데 결승에서 1위로 대회를 마무리해 기쁘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청송꽃돌전시, 청송백자전시,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와 청송사과 시식코너, 관람객들을 위해 기념사진촬영 장소도 마련됐다.

경기장 주변에는 얼음조각전시, 겨울전통먹거리와 연예인 초청 공연, 경품추첨, 4d 클라이밍, 천 아트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볼거리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윤병문 기자

"개신창래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 열자"

대구은행 '2024 목표 달성'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가져

DGB대구은행은 수성동 본점에서 2024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실시했다 15일 밝혔다.

경영전략회의는 임원 및 부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병우 은행장은 "지금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경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순간이며 이를 위한 선명하고 차별성 있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를 직접 그리는 것이므로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DGB대구은행이 시작한 것처럼 개신창래(開新創來)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최고의 미래를 직접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경영환경 분석을 시작으로 주요그룹 올해 경영전략 및 지역 본부별 영업전략 발표, 결의다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달 조기영업과 압축성장을 위해 예년보다 2주 이상 시기를 앞당겨 진행됐다.

올해 경영목표인 '최초에서 최고로, 새로운 도전을 고객과 함께'는 최초의 지방은행에서 최고의 은행을 향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성공적인 시중은행 전환을 고객과 함께하겠다는 DGB대구은행의 의지를 담았다.

전략방향으로 은행의 기본인 고객의 신뢰, 디지털 시대 고객을 위한 혁신, 고객에 의한 도약을 설정하고 고객 성공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DGB대구은행은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고객관점으로 업무를 재편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개인·기업·공공 그룹으로 구분하고 더 촘촘한 고객관리를 위해 지역본부를 8개로 세분화했다.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주요 그룹과 지역본부의 추진전략을 전국 부점장들과 공유하면서 세부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공유했다.

개인고객그룹은 고객의 즐거움을 위한 상품전략을 제시했다.

기업고객그룹은 데이터기반 찾아가는 영업과 교차판매 전략을, 공공금융그룹은 지역과 세대의 공감을 얻는 사회공헌방안을, IMBANK그룹은 기업뱅킹 고도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지역 본부별 영업계획에서는 적극적인 실행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한다는 목표가 이어졌다.

회의 시작 전에는 지난 연말 DGB대구은행이 선보인 AI은행원 한아름의 안내로 디지털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앞으로 대구은행 대전환의 불꽃을 밝히자는 의미에서 성화 봉성 퍼포먼스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민 60.8% "지역 교통 안전하다" 응답

달성 안전하다 응답률 65.4%로 가장 높았다

대구시민들이 대구지역의 교통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동부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25일까지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 총 3422명(남 2111명·여 1311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710명), 연령대별로는 30대(1043명)가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대구의 교통안전도에 대해 '안전하다' 응답이 60.8%로 '위험하다' 응답 7.4%보다 8배 이상 많았다.

지난해 5월 대구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 '안전하다' 응답률 대비 8.2%p 높았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안전하다' 응답률이 65.4%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63.6%)이 여성(56.2%)보다, 운전자(62.5%)가 비운전자(46.5%)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 위협 교통수단으로 이륜차(44.6%)와 개인형 이동장치(25.2%) 응답이 대다수로 돌발 출현과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사고 발생 시 부상위험이 높아 시민들에게 불안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근절해야 할 법규위반행위로 남녀노소 불문 음주운전(30.8%)이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시설 관련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9%로 대다수였으나 초등학생 자녀를 많이 둔 30대에서 76.1%로 가장 낮았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개소(64개소) 적정 여부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55.8%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56.0%로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올해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태용 기자

대구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4개월만에 반등

전월 대비 4.5p ↑

대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기준치(100)는 회복하지 못했다.

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전월(91.3) 대비 4.5p 상승한 95.8을 기록했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선'을 밑돌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7.7,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8.2로 각각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심리지수는 보합, 하강, 상승 등 3개 국면을 9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85~95는 '하강 국면 1단계', 95~100은 '보합 국면 약보합' 상태를 나타낸다.

12월 대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면 '낮아졌다'는 46.9%인 반면 '다소 높아졌다'는 0.3%에 불과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주택매도·매수 현황을 보면 매수 문의는 단 한명도 없었으나 매도 문의는 87.2%에 달했다.

주택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증가했다'는 4.2%로 전월(6.3%) 대비 2.1%p 줄어든 반면 '다소 감소했음'(31.5%), '매우 감소했음'(12.8%) 등 '감소했다'는 44.3%로 전월(36.6%)보다 7.7%p 늘었다. 조여은 기자

동구청,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원 부과

동구청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2000건, 1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8000~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080-788-8080)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화상 피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모녀 돕는다"

경주시, 성금 1000만원 전달
주낙영 경주시장, "긴급지원 필요한 곳 도움 주도록 노력"

경주시가 주택화재로 부상을 입은 고려인 동포 모녀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신 라이샤(42·여)씨와 김 엘리나(13)양은 지난달 17일 밤 11시 58분께 발생한 성건동 상가주택 화재로 각각 2도와 3도의 화상을 입고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전달된 성금은 경주시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최 '제15회 다산목민대상' 본상에 선정되면서 받은 포상금 1000만원으로 마련했다.

당시 화재는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불은 1시간 만에 껐지만, 엄마 신 씨와 딸 김 양은 얼굴과 손,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었다.

모녀는 현재 화상전문병원인 대구광역시 소재 푸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탓에 행정 지원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다, 두 모녀 모두 한국말이 서툰 탓에 건물주와의 소통마저 원활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녀의 치료비는 현재까지 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와 경북고려인통합지원센터가 이들 모녀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우일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손지연 선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선도동 통장협의회 회원 및 바이크원 김만석 대표 등 시민들도 십시일반 모금 활동에 동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가슴이 아프다"고 위로하며 "조속히 상처를 딛고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받은 '다산목민대상' 본상 포상금이 의미 있는 곳에 잘 쓰이게 됐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주최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실천하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윤용찬 기자

"사드배치 무효" 주장 2심도 각하

성주·김천 주민들 "절차 무시"
2017년 2월 소제기…"문제없어"
1·2심 "부작위 상태 해소" 각하
부지공여 무효도 안 받아들여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소가 각하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지난 11일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소를 각하했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을 확정했다.

이듬해 2월에는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국방부가 민원에 대해 회신하는 등 무응답 내지 부작위 상태가 이미 해소됐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 또는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은 "원고(주민)들은 2017년 1월 피고(국방부)에 사업계획을 공고해달라며 제1 부작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방부 측은 공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부지는 한·미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에 공여됐다"며 "피고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미국 측을 사업시행자로 삼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고들이 사업계획 공고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원고들은 같은 시기 피고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달라며 제2 부작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국방부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계획은 국방시설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합동참모의장이 사업부지를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도 사드부지 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1심은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이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도재훈 기자

경북소방본부, 아파트 화재 대피 계몽운동 펼쳐

상황별 대피요령 등 교육
우리 가족 대피계획 진행

지난 12일 새벽 구미시 옥계동 소재 아파트에서 생긴 화재로 부상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를 포함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경북 관내 공동주택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4명의 인명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이처럼 계속되는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 지난 12일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과 경산소방서 관계자, 의용소방대가 참여한 가운데 경산시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가족 대피계획 세우기 계몽운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 스스로 정립하기'와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기',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실시했다.

계몽운동에 앞서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뀐 대피 원칙과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상황별로 다른 대피요령을 교육했다.

이날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인,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화재 발생 전파 및 초동 진화 활동과 입주민들의 대피, 소방기관의 현장 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입주민 참여형 소방 훈련을 했다.

경북소방본부는 경산시 이외에도 도내 전 시군에서'아파트 화재 대피 안전대책'을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운 기자

대구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290억원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힘쓴다

대구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90억 원을 투입한다.

대구교육청은 학교별 급식 여건과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 △급식시설 개선사업 △급식기구 교체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진행한다.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급식실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중 학생수 증가에 따른 급식소 및 식당 증축이 필요하거나, 그린스마트사업 등 학교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학교 19교를 대상으로 진행, 213억 원이 투입된다.

급식기구 교체사업은 노후된 학교급식시설을 HACCP*기준에 맞게 재배치하고, 전기식 및 자동화 급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33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사업은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물품·시설 등을 교체나 개선을 요청할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4억 원을 투입한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및 고용노동부가 마련한'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부합하도록 급식시설을 개선해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급식만족도를 높인다.

조리종사원 휴게시설 리모델링 및 유휴공간을 휴게실로 확보, 다기능오븐기 등의 현대화 급식기구 지원 및 냉방기 개선, 공조장치 지원도 확대 추진해 조리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선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과 조리종사자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급식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구급대·병원 중증환자 판단 기준 통일…

응급실 뺑뺑이 예방 기대
2월부터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도입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통일된다. 119구급대가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구급차에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오는 2월1일부터 병원 전(前)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전국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체계란 119 구급대가 판단하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의료진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현 상황에서는 구급대원이 중증환자로 분류해 응급실로 이송해도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와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를 수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및 대한응급의학회는 2021년 12월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2차례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보완 의견을 수렴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 완성도를 높였다.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는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의 안전·이송·분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단계부터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정 병원 선정으로 의료기관의 수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오는 2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구급대원 약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Pre-KTAS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 팀장은 "전문자격을 갖춘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부터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만큼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간의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등교육 공모사업 내실화
경북도교육청 성과 보고회

경북교육청은 15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도내 초등학교 교사 470여 명을 대상으로 '초등 교육과정 공모사업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성과보고회는 △교육과정 △기초 학력 △인성교육 등 지난 1년간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초등 교육과정 정책 관련 공모사업은 △선도학교 92교 △선도 학급 562학급 △교사 동아리 1410팀으로 운영됐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경북형 공동 교육과정' △놀이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등 총 18개 정책의 공모사업을 운영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지식·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발맞춰 우리 학생들이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경북도, 설 중소기업 1200억 운전자금 지원

경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15~26일까지로,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북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북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로 17일부터 융자신청 결과가 기업 등에 통보된다.

도는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설 연휴 전인 다음달 2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코스피 (-4.43) 2,521.62 | ▼ 코스닥 (-8.99) 859.09
▲ 엔 화 (+2.15) 909.64 | ▼ 유 가 (-0.05p) 1,565.08
▲ 환 율 (+6.30) 1,321.30 | ▲ 금(쇼) (+32.40) 2,051.60
www.dgy.co.kr

경북 바이오산업 혁명 글로벌 시장 이끈다

올해 글로벌 백신·제약 '협력 기반' 구축 강화 바이오산업 육성 박차

경북도가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틀을 다진다.

팬데믹 이후 건강, 식량, 기후 문제 등에 관심이 급증,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탓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바이오 신산업을 발굴·육성, 제조 산업의 기반을 새롭게 다져 경북의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 미국과 바이오 경제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개 분야에 2026년까지 총 550조원 투자 유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도는 바이오산업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중심으로 첨단 백신·제약, 그린바이오, 뷰티산업 등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바이오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있다.

▣ 제약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

도는 지난해 3월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을 담당할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말레이시아 Pharmaniaga, 태국 NVI와 연계한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동남아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 백신인력양성을 위해 구축중인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22~26, 240억원)가 WHO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에 선정('23. 7.)되어 지역 캠퍼스를 운영한다.

안동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와 연계한 백신 관련 연구소와 기업, 경북형 백신산업 지원 인프라를 통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더욱 매진한다.

기존 백신 인프라와 연계한 아프리카 등 제3지대와 동남아시아 해외 인력양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발돋움한다.

포항은 포스텍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연구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연구센터(IRC, Innovation Research Center) 공모에 포스텍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가 선정됐다.

2033년 2월까지 10년간 총사업비 577.5억원(국비 487.5억원)을 지원받아 첨단 바이오(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특성화 기술 기반의 개방형 융합 연구를 추진한다.

대형장비(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국가거점으로 지정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을 통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도와 대구시는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다.

원료부터 수출까지 뷰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뷰티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44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경북에 있는 6개의 뷰티산업 관련 기업을 공모 선정해 지난해 7월 '2023 비엣뷰티 & 코스모뷰티 베트남'에 참가, 총 63건(227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했다.

이 결과 현지 기업과 5만 달러 구매의향서를 체결했다.

동남아 위주의 수출 지원에서 미주, 유럽 시장으로 판로 개척 지원까지 확대한다.

도는 보건·복지 증진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활기기 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91억원(국비 39억원)으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어린이들의 선·후천적 기능 저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재활기기 분야의 시장 진입 및 확대 등으로 지역 재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3회 2024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9월께 안동 실내체육관 일대에서 열린다.

기업부스, 기업상담회, 포럼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경북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한다.

관련 기업·기관의 참여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바이오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김성용 기자

농업대전환 시대… 경북 안전망 구축 힘찬 출발!

경북도, 올해 75억원투입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3대 농업인 안전망 구축

경북도가 올해 총사업비 75억원(구비 37억5000만원, 도비 4억5000만원, 자부담 22억5000만원)을 투입,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

빈틈없는 농업안전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주문했다.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는 정책으로 19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김성용 기자

대구시,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제조·판매업체 118곳 점검 고의적 불법행위 형사고발

대구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19일까지 9개 구·군과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 한과류 등), 조리식품(전, 튀김 제품 등) 및 건강기능식품(홍삼 제품, 비타민 제품 등) 제조·판매업체 118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설 명절 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참돔, 떡, 한과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60건을 수거,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한다.

시는 설·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에 대해 매년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90곳을 점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제조업체 1곳과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영업에 종사한 제조업체 1곳을 적발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벚꽃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3월 22일까지

경주시가 제31회 벚꽃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월 22일까지 공식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접수한다.

대회는 4월 6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열린다. 풀코스를 제외한 하프코스, 10km, 5km 종목에 별도의 참가비와 함께 선착순 1만20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대회에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19개국 1만969명이 참가했다. 보문호반을 따라 벚꽃이 만개한 경주의 봄을 달리며 장관을 연출했다.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대회는 매년 가족과 직장 동료, 동아리 회원 등이 함께 경주를 찾아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 강력 청렴정책 실천

부패 Zero 클린경주 청렴 도시 쾌속순항

주낙영 경쥐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클린경주 추진기획단’ 2024년도 제1차 보고회를 15일 오전 가졌다.

‘클린경주 추진기획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주시가 2020년 시장, 부시장, 국소본부장, 직속기관 부서장들로 구성된 내부 조직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4년도에도 청렴도 최고등급 유지를 위해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청렴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공직자가 적극행정 생각을 갖고 청렴한 경주를 이어가도록 더욱 더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부서장들이 직접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확대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업무·직렬별 신입직원으로 구성된 청렴 주니어보드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발굴, 자체 설문조사 결과 개선대책 컨설팅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경주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홍보 ‘앞장’

4인가구 기준생계급여 지원액 월 162만→183만원 대폭 인상

경주시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복지정책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변경되는 복지정책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금 확대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부모급여 인상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욱 든든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중위소득이 기존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액은 월 162만 원에서 월 18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4인 가구 기준 전년대비 13.17% 인상된 18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생계곤란저소득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시간당 1만66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인상됐다.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월 최대 34만3천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됐다. 경로당 냉방비(7~8월)는 월 5만원, 난방비(11~3월)는 월 3만원이 각각 인상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여가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영아 종일제 기준)은 시간 당 1만 1080원에서 1만 1630원으로 인상됐다.

한부모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1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양육부담을 덜어 주게 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는 1일(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디딤씨앗통장 사업대상자는 만 12~17세에서 0~17세 기초수급아동으로 확대됐다.

변경되는 복지급여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되는 복지정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노인 사랑방 경로당 집중 활성화

올해 경로당 활성화 68억원 쏟아붓는다 경로당5곳 신축84곳 붙박이 소파 설치…

경주시가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생활복지공간으로서 경로당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지역 발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 만족도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한해 등록경로당 633곳에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물품지원(37억원) △행복선생님(16억원) △안전관리 사업(1억원) △환경개선사업(9억원) △소파 설치지원(5억원) 등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한다.

노인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을 집중 활성화해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행복한 인생 2막이 되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나선다.

운영비는 개소 당 면적별로 연간 250~28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공공요금, 연료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된다.

냉·난방비는 연간 최대 233만원 까지 지급되며, 도시 가스비, 전기세, 유류대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행복선생님 45명은 경로당에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은 1인당 15곳을 담당하며 △프로그램(건강증진, 여가·취미) 코디네이터 △복지(위기노인 조기발굴) 코디네이터 △경로당(보조금 집행, 회계관리) 코디네이터의 3중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경로당 내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전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전기·소방 안전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다.

올해는 노인복지의 핵심인 경로당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건천 송선2리 △내남 노곡2리, 전포 △현곡 오류1리 △산내 괘일장척 등 경로당 5곳을 신축한다.

여기에 경로당 보수와 보일러 및 싱크대 교체, 도배도 함께 추진한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84곳 경로당에 붙박이 소파 설치 사업도 진행한다.

시는 올 1~12월까지 1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분야로 나눠 4236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용황지구서 현곡면 바로 넘어간다” …

경주시, 황금대교 3월개통 만성적 교통난 해소 기대

경주 현곡면과 황성동을 잇는 황금대교가 오는 3월 개통한다.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간 지 3년 만이다.

실제 현곡면 및 용황지구, 황성동 일대는 아파트 등 잇따른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증가, 강변로 및 금장 일원의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심화됐다.

황금대교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매우 크다.

시는 사업비 410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황금대교의 공정률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는 3월 초 개통한다.

지난해 11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같은 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포스코 침수로 자재 수급에 지연을 겪어 온 탓에 일정이 지연됐다.

현곡 라원역 일원 전주 및 광케이블 이설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황금대교는 만성적인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경북도에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황금대교는 폭 20m, 연장 371m 규모의 왕복 4차선 교량이다. 2018년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9년 노선선정 및 교량공법 선정 완료와 2020년 7월 실시설계 완료를 거쳐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갔다.

황금대교가 개통되면 기존 황성동과 현곡면을 유일하게 연결하던 금장교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황금대교 개통으로 금장지구와 용황지구는 물론 황성동 등 주거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수의 복지정책… 군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 청도

모두 평등 차별 없고
잘 보듬는 복지 실현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 청도 구현 노력
이게바로 청도 '복지'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일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가 생활도 많이 즐기고 여행을 간다.

복지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의미다.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다.

때문에 김하수 청도군수는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민생을 살피고 취약계층은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이 없도록 군민을 잘 보듬는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군수는 "2024년 새해에도 군민들 곁으로 다가가 소통하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힘차게 달리겠다"라고 했다.

김 군수가 말하는 복지정책이다.

▣ 군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행정

청도군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주민복지과는 2024년도 갑진년 새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군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행정이다.

다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청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의식 선진화를 위해 매월 1일 청도행복헌장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 활동 하기'를 실천한다.

보훈시설인 충혼·위령탑 주변 환경 정비로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앞장선다.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한다.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대인, 대물)책임으로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내 지원한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제도가 시행됐다.

현행 조례의 보험료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월보험료 부과금액 1만 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를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담완화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사회복지의 장,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군민과 복지분야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만드는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다양한 복지사업 홍보,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행정력을 모은다.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회복지의 날(9.7.)에 맞추어 복지박람회를 연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및 유가족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다.

지급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변경,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및 처우개선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기관·단체 종사자에게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의 분야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꾀한다.

△아동복지기금 조성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청도군에 아동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조성액은 5년간 30억 원이다.

저소득 아동 및 학대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해 지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방과 후 일상돌봄,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 개소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돌봄공동체사업

부모, 주민자치회, 부녀회, 노인회 등 마을의 다양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정보 제공 및 소통의 장, 동화구연, 도서, 장난감 대여 등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운영한다.

△수급자 건강챙기미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약 복용을 통한 건강증진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약 달력을 제작 배부한다.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무연고사망자의 유품정리로 임대인 및 이웃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

사후정리를 통한 고인 추모를 위해 특수청소비용 등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복지신문고 운영

노인·장애인 등 이동에 취약한 군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복지 궁금증을 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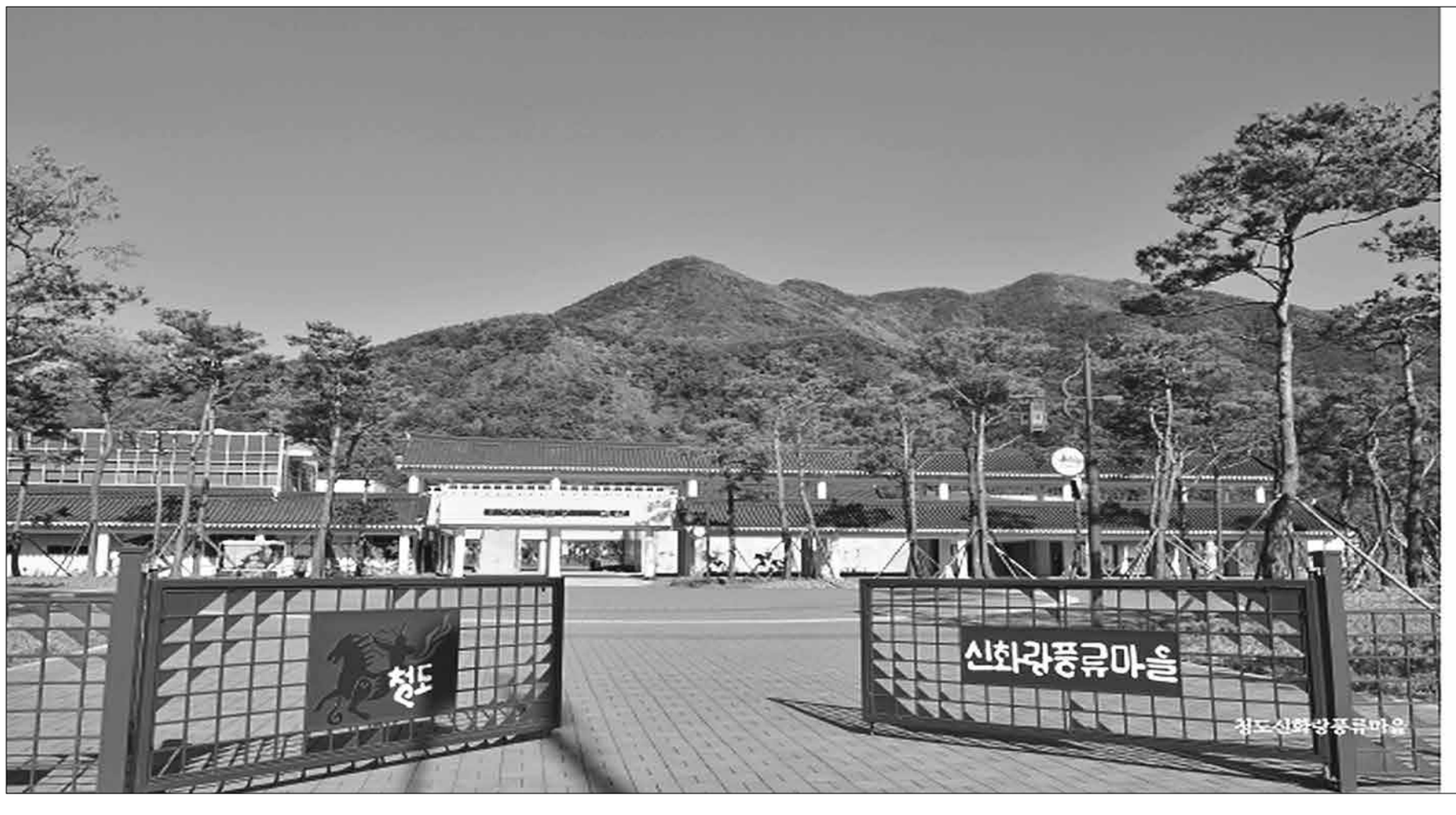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집중 발굴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복잡·다양해지는 군민의 복지 욕구에 탄력적 대응으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복지행정을 실천한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40~64)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4)에게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등 새롭고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한다.

조여은 기자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
CHEONGDO GUN COUNCIL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의회 054-370-6404

영덕 울릉 청송 영양

민주평통영양군협의회 성금 기탁

민주평통영양군협의회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을 위해 37명의 자문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모금액 전액을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

이동호 협의회장은 "작은 성의라도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민주평통 영양군협의회에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주평통 영양군협의회에서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어려운 이웃에 나눔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불법소각 집중단속

청송군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투기)을 집중단속 한다.

관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생활(영농)폐기물 적정 배출 홍보 등을 지속 추진 중에도 불구하고 불법소각이 빈번한 탓이다.

주로 생활·영농폐기물 배출(처리)실태 확인 및 관내 취약지구에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엄중 처벌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주민 및 사업주들이 생활·영농폐기물 등을 적정 배출, 친환경적 처리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과 산소카페 청송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 '칸막이 없는 행정' 특명

간부공무원 간담회 부서장 '의견' 듣고 2024년 '새해' 비전 업무추진 방향제시

오도창〈사진〉 영양군수가 15일 간부 공무원 간담회에서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고 2024년 새해 비전 및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능동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6급 공무원 중심의 업무 추진을 지시하며 보고서 작성 교육 등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담당 업무와 관련 없이 시책 발굴 및 부서 간 상시 업무 연찬과 복합 민원 협력 대응을 강조했다.

성황리에 개최 중인 '제1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운영 시에도 부서 구분 없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지시하고 올해 '칸막이 없는 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도록 독려했다.

본격적인 고추 육묘 시기를 맞이해 육묘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화재 위험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외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영양군립 공원묘원 조성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25년 예산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권윤동 기자

독도박물관,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 2편 발간

연구총서 사업의 두번째 결과물 울릉도 지역문화 보존 연구사업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독도박물관 연구총서 '울릉도민구술사연구 차원복'을 발간했다.

울릉도민 구술사 연구는 울릉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살아온 지역민들의 구술생애사 채록을 통해 거시사에 기록되지 않은 주민들의 삶의 기록을 통해 지역사를 재조명하는 사업이다.

독도박물관은 2022년부터 울릉도를 개척하고 발전시켜온 주민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록, 기존 문헌자료와 구술 채록 자료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문헌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생생한 울릉도민들의 삶의 기록을 수집했다.

생활사의 범주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켰다.

이번에 발행되는 연구총서는 본 사업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연구 대상은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차원복 氏'다.

그는 1934년 울릉에서 태어나 평생 동안 사동 3리에서 살았다.

농·어업, 새마을사업,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했다.

독도박물관은 그의 구술 자료를 통해 일제강점기 울릉도의 야학 및 공립학교의 설립과정, 공출제도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 울릉도 농업의 다변화 과정, 사동 3리 새마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사 등을 연구도서에 담아냈다.

독도박물관은 올해 울릉도의 사라져가는 가까운 옛날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울릉도 지역사의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을 선정, 연구한다.

울릉도 개척 및 발전에 한축을 담당했던 여성들의 미시사와 문화를 조사, 구술사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자신의 삶의 역사를 허심탄회하게 구술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울릉도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시행, 풍성한 역사를 간직한 울릉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역량교육이 으뜸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액션그룹을 발굴, 1단계 소액지원사업과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지역 활동가(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은 지난해 12월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11일까지 총 5회차 교육으로 23명의 퍼실리테이터 전문자격 취득 수료생을 배출했다.

퍼실리테이터 과정은 회의나 워크숍을 설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단체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오는 23일부터 총 6회차로 진행되는 지역특화 활동가 양성 심화과정을 한다.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교육으로 진행한다.

심화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한 지역활동가들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 일으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되는 각종 역량 강화 교육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육성된 지역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지역 내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로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청송보건의료원, 모바일 금연클리닉 개설

카카오톡 채널 접속 비대면 상담도 가능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관내 흡연자의 금연 지원과 모바일 금연클리닉 활성화를 위해 QR코드를 개설했다.

QR코드 개설은 지역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금연클리닉에 접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대면상담이 어려웠던 흡연자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접근성을 높여 전문 금연 상담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

금연에 관심 있으면 QR코드 스캔으로 기초 설문지만 작성하면 순차적으로 금연상담사와의 전화 상담이 이뤄진다.

카카오톡 채널 접속으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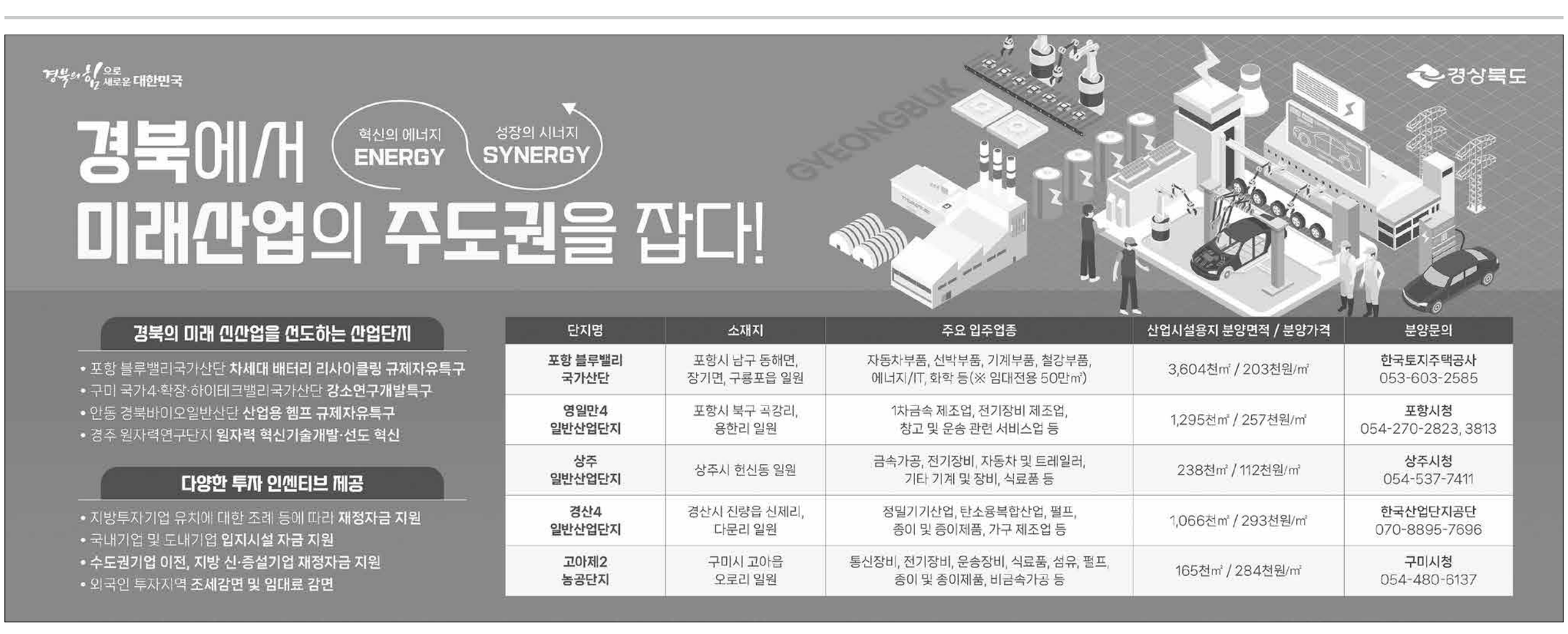
카카오톡 채널 이용 시에는 카카오톡 앱에서 '청송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을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해 1:1상담과 금연 건강 소식도 받을 수 있다.

QR코드는 보건의료원 홈페이지 및 SNS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과 전단지 부착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배부활동한다.

청송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금연을 희망하지만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이용 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새해 금연을 결심하는 군민들은 모바일 금연클리닉의 지원을 받아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 시도율을 높여 건강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6년 연속 우수축제선정

영천시 대표축제인 '영천보현산 별빛축제'가 2024년 경북도 지정 축제 심사에서 6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북도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를 평가한 결과 '영천보현산 별빛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돼 2025년까지 2년간 총 1억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매년 별 보기 가장 좋은 10월에 보현산천문과학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주제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색적이고 다양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로 매력적인 '별의도시 영천'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은하 기자

성주군, 야간 금연클리닉 흡연은 도움 필요한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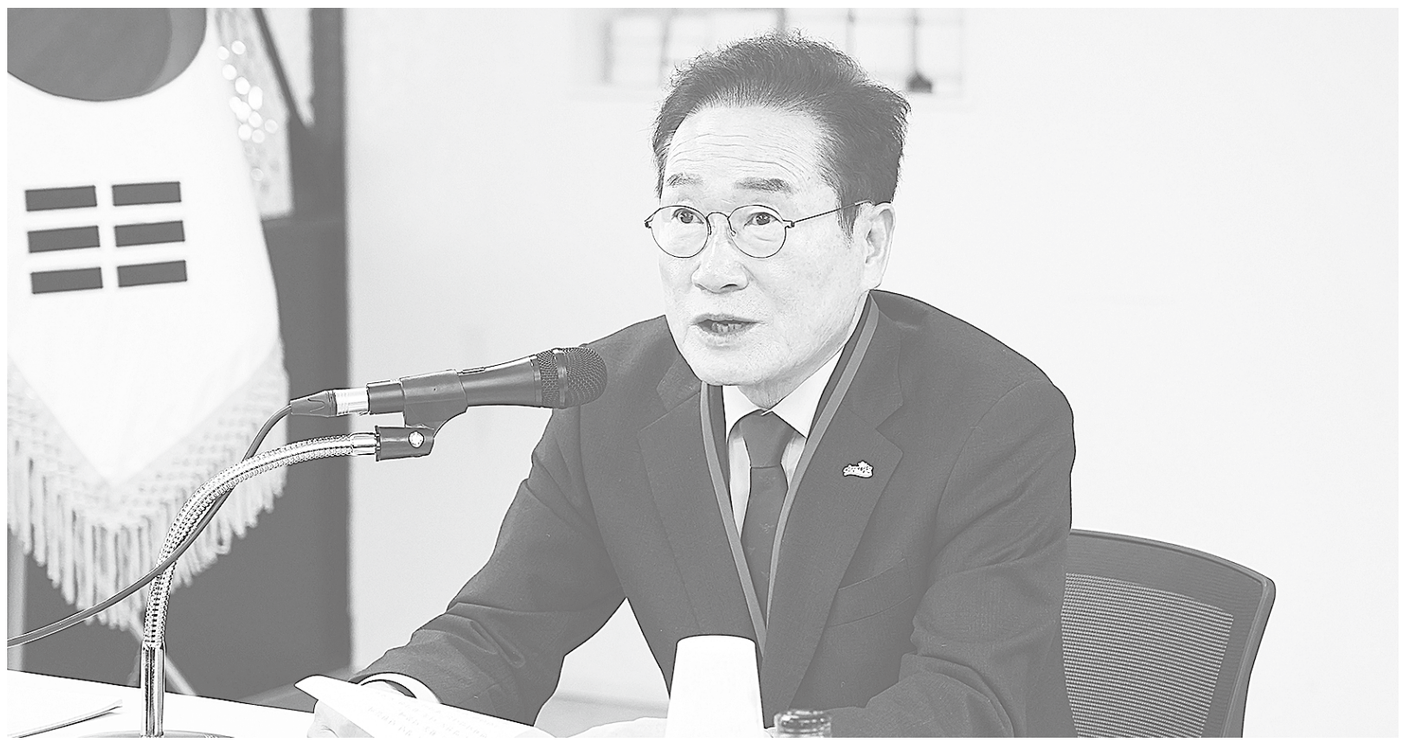
성주군보건소는 낮시간에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지역주민 위해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은 금연전문상담사의 개인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니코틴의존도 검사 등 기본 검사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금연 행동강화 물품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재흡연 예방을 위하여 3개월 금연유지자에게 격려품을 제공하며 6개월 금연성공자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금연성공자로 하여금 금연의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주보건소는 직장등으로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지역주민들이 야간 금연클리닉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아 평생 금연에 성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미래설계 돕는다

9개 분야, 107개 사업, 예산 167억 투입 청년들이 머무르는 Young한 도시로…



영천시가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돕고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 분야 100여 개 사업추진으로 167억 원을 투입해 청년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취·창업·기업지원)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자산형성 및 채무부담 완화 등) △결혼·임신·출산 지원 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2024년 신규사업

특히 올해는 청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구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만들 계획이다.

완산동 일대에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창업과 교육·생산·연구 등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비즈니스 공간 운영으로 지역 청년 창업의 거점기지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최초 시행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인 사업이다.

또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들에게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지역 청년들이 활력을 찾아 재기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 청년정책의 핵심 취·창업지원

영천시는 19세~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소해 취·창업지원했다.

작년 한 해 큰 인기를 끌었던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분기별 5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 내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편성해 지속 추진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등 27개의 사업을 확대 편성하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 청년 맞춤형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

시는 다양한 놀이문화를 찾는 청년세대를 위해 청년리더십워크숍, 청년 청춘콘서트 개최, 청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다각화하고, 청년 선호에 맞춰 참여하고 싶은 문화예술 및 활동 지원 정책 추진으로 지역 청년의 정서적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천시는 이러한 청년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촘촘한 네트워크 형성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니, 대구 도심권과 실질적인 하나의 생활권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우리 청년들이 더 넓은 시장을 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며,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젊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보건소, 올바른 정보로 군민건강 챙긴다

누구나 무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 최선

고령군 보건소가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군민건강 챙기기에 바쁘다.

상급병원과 먼 지역특성 상 군민들의 건강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질환에 대해 미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예방관리를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군 보건소는 예방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치매로부터 안전한 실종 ZERO 고령군

고령군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환자 실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실종 경험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2024년 2월부터 배회감지기(GPS)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배회감지기(GPS)는 손목에 착용하는 위치추적장치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설정한 지역 이탈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갈 수 있는 기능 및 낙상 감지, 산소포화도·심박수 측정, 만보계 기능 등이 있다.

신청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령군치매안심센터(☎ 054-950-7961~2, 79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3060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 운영

고령군보건소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개진면 옥산보건진료소 2층 회의실에서 30대 ~ 60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나는 난타와 함께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청년층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청년층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및 활동량 부족으로 비만 및 과체중의 증가 등으로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최근 젊은층의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비만도 검사, 난타 수업 12회 및 건강증진 교육 10회(심뇌혈관질환, 영양, 금연·절주, 운동, 구강, 치매예방, 알레르기질환 등),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한 비대면 걷기,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 고령군보건소, 레드서클존 운영

고령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알기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45개소에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레드서클존'을 운영한다.

'레드서클존' 운영자는 총 8개소 보건지소·진료소로 보건지소 2개소(우곡보건지소, 개진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6개소(저전보건진료소, 내곡보건진료소, 벌지보건진료소, 옥산보건진료소, 봉산보건진료소, 월막보건진료소)이며, 관할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서 실시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해 보호자가 실시간 치매환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실종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움으로써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상주 '명실상감한우' 말레이 할랄시장 진출

상주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2천여kg 물량 수출길 올라

상주축산농협이 상주시 축산물공동브랜드 명실상감한우가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수출하게 됐다. 지난 11일 국내 유일의 할랄수출작업장 (주)한다운에프에스엘을 통해 약 2000kg의 물량을 선적했다.

명실상감한우는 상주시와 상주축산농협이 공동으로 3년 동안 사양시험과 연구를 거쳐 비타파워라는 자체 특허사료(특허 제0385929호, 제0385930호)를 개발·공급해 상주곶감의 이미지와 한우를 접목시킨 한우 브랜드다.

신기봉 축산과장은 "명실상감한우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하여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실상감한우가 말레이시아 할랄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브랜드 가치 상승은 물론 안정적인 판로 확대,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기자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의성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기업체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구미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숙사 임차료 80% 지원
- 중소 : 20호실, 호실당 최대 25만원
- 중견 : 50호실, 호실당 최대 10만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구미시 지원확대 시행

구미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근로자이며, 전입 기준일은 기숙사 입주일로 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 누리집과 사업지원팀(☎054-461-5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김천시, 최대 3천만원

김천시는 '2024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와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어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 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이내다. 오는 31일까지 신청(건축디자인과)받아 심의 등을 거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이경호 기자

신현국 문경시장,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행정

23일까지 읍면동 순회 간담회

문경시는 16일 점촌5동·점촌1동을 시작으로 23일까지 14개 읍면동을 찾아 2024 긍정의 힘! Yes 문경 공감·소통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및 고충민원을 듣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신현국 시장은 "문경시 전 공직자는 친절·스마일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한친절 세계 1등 친절도시 문경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시정에 반영하고 긴급한 민원사항은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현국 시장은 민선 8기 문경시장으로 취임한 이래 매주 수요일을 민원인의 날로 지정해 시민의 고충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상주쌀연구회, 상주쌀 미소진미 재배 교육 실시

식량산업 발전방향 토론도 가져

상주쌀연구회가 지난 1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미소진미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쌀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중인 품목농업인연구회로 2000년에 조직돼 9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상주 식량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최고품질 쌀 미소진미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최고품질 벼 미소진미 안정생산기술'을 주제로 미소진미 육종가인 국립식량과학원 이종희 연구관의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상주쌀연구회 이외에도 관내 미소진미에 관심있는 농업인 및 재배 농가 6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미소진미 품종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상주쌀연구회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고품질 상주쌀 육성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상주쌀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술보급과장은 "최고품질 쌀 미소진미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농업인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삼백의 고장 상주의 대표 농산물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상주 사벌국면 '복지쌀통' 어려운 이웃돕기 호응 커

상주시 사벌국면(면장 김주연)에서는 '복지쌀통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을 지원하는 쌀통'이란 뜻을 가진 '복지쌀통 사업'은 면사무소 입구에 비치된 쌀통에 주민들의 쌀을 기부받고, 이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벌국면 자체복지사업이다.

올해 8월 첫 시행되어 현재까지 약 500kg의 쌀들로 쌀통이 가득 채워졌고, 60여 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관계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온정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여느 기부 행사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지역사회 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주연 사벌국면장은 "쌀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을 마련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주민들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구미시 산림휴양문화 저변 넓힌다

어린이 숲놀이터 연내 준공 등 힐링·즐거움 가득 인프라 늘려

구미시가 도내 최고의 산림문화·휴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늘어나는 산림 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을 특색있게 조성하기로했다.

천생산성 산림욕장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 구미에코랜드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장 조성 등 산림휴양문화 공간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천생산성 산림욕장은 2002년 개장 이후 매년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구미시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 중 하나다.

이곳은 도심근교에 유아숲체험원, 등산로, 출렁다리, 전망대, 대피소 등을 조성해 일상생활 속 힐링 산림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유아 숲 체험원은 '22년도 기준 180개 이상 어린이집·유치원의 1만6000명이 찾아 인기가 많다.

올해 유아 숲 체험원과 연계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확보된 모험·체험형 숲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0억 원(도비 3, 특별조정교부금 2, 시비 5)으로 전문성과 창의성 등이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구미에코랜드에 '짚코스터'와 옥성자연휴양림 내 '네트모험시설' 조성했다.

현재 무료 운영 중인 짚코스터는 2개월간 1129명이 이용했으며, 방문객들의 모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옥성 자연휴양림 내 네트모험시설은 올해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 속에서 휴식하고 즐기는 다양한 산림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미에코랜드 내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공간 등을 조성해 산림휴양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숲속에서 놀며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한 야외놀이시설과 체감형 생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0억 원(도비 15, 시비15)이다.

에코랜드 내 숲속놀이마당 및 생태학습공간은 1월 실시설계용역, 6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은진 기자

안동 영주 봉화 예천

권기창 안동시장은 16일 오전 이육사문학관에서 진행되는 육사 이원록 선생 순국 80주기 추념식에 참석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16일 오전 봉화읍사무소, 오후 2시30분 물야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2024년 읍면 군정설명회'에 참석한다.

의성 다인면, 취약가구 벽부등 설치 사업 실시

의성군 다인면 마을돌보미는 지난 9일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52가구에 태양광 벽부등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다인면 마을돌보미 위원들은 대상자 발굴 및 설치 지원등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안전한 밤길을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해 태양광 벽부등을 달아 드리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성 기자

머물고 싶은 안동 조성 도심 내 수변 공원 확대

안동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과 반변천 주변 수변공간을 활용해 도심 내 공원 조성을 확대해 나간다.

용상동 동천보 주변 낙천공원을 시작으로 올해 정하동 일원의 낙동시민공원(정하지구 9189㎡ 규모)과 내년 착공을 목표로 수상지구(9000㎡ 규모)를 조성한다. 용상동 반변천 주변 '마뜰공원'(가칭, 7000㎡ 규모) 등 생활권 주변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도심 내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동유럽 시장공략…현지 농특산물 판촉전

체코·독일·헝가리서 농특산물 홍보·수출상담

영주시가 농특산품의 동유럽 신규 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권헌준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장,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 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영주시방문단은 지난 10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에서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방문은 영주시 농특산품 수입이 늘고 있는 체코 등 동유럽 현지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방문단은 농특산품 수요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조사와 수출 상담 활동을 펼친다.

지난 13일(현지시간)에는 체코 프라하 Asia Market SAPA에서 영주시 농특산품 홍보와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홍삼제품, 인견, 청국장 과립, 전통부각, 산양삼 제품, 쫄면류 등 영주 농특산품을 전시하고, 무료 시음·시식을 통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11일과 15일에는 독일, 헝가리 현지 마트를 방문해 영주시 농특산품 전시·홍보 등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방문단은 지난 12일 체코 바이어 한다음((HANDAUM s.r.o.), 13일에는 코리안푸즈와 영주시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체별 맞춤형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홍보 및 현지 시장조사가 영주시 농특산품 인지도를 높이고 동유럽 전역 판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쇼핑몰 '의성장날' 특별 이벤트

설 명절 기념 최대 30% 할인

의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 '의성장날'에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 기간 중 의성사과, 의성마늘소, 쌀 등 전 품목에 대해 10~30% 할인 판매한다.

전 품목 무료배송, 신규회원 가입 쿠폰(1만 원) 지급, 구매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의성장날'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의성군이 2006년 개설했다.

현재 171개 농가·업체가 입점해 사과, 마늘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고추장, 흑마늘가공품, 홍화 등 73종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 중이다.

2019년 소비자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019~2020년 2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해는 2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경북도가 주관한 '2023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의성군 온라인 쇼핑몰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안동시, 농업인력의 확보 다변화… 국비 1억 원 확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2개 농협 선정

안동시는 농업인력 확보방안을 다변화하고 인력수급 부문에서 공공영역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은 고령화 등으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업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7개소 상시 운영해 인력수급을 조절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2022년 관할 지역농협 6개소(국비 2, 자체 4)를 대상으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한 이래 매년 국비 지원 공모에 참여해 국비 1억6천만 원도 확보했다.

2024년 국비 지원 1개소가 추가 선정돼 농촌인력지원센터와 함께 총 7개소의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안동시 농촌인력 중개(지원)센터는 2022년 4만2224명, 2023년 4만8453명의 인력 중개 성과를 달성했다.

2024년에는 5만 명 이상의 중개를 목표로 상시 농업인력 수급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시중 인건비보다 낮은 이용료로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수시 고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공동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고 지역 농작업 현장에 적기적소 투입될 예정이다.

또 운영주체와 계절근로자가 선순환할 수 있는 근로일수 및 고용인력수 등을 산출해 지역농협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2023년 2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입국 후 농가에 배치돼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거뒀다.

2024년에는 570명이 법무부로부터 배정심사를 통과해 농촌 인력난해소에 숨통을 트게 됐다. 또한 고용농가에 산재보험료·외국인등록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 문화·화합행사 개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의성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신청

의성군은 2024년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 5934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6일까지 공동살포를 접수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에 규산, 석회, 패화석을 무상으로 공급해 토양을 개량하고 유효규산 함량을 높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하는 3년 주기 사업으로 2022년에 23~25년도 사업을 일괄 신청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금성면, 단북면, 구천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등 6개 면에 공급이 될 예정이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는 농촌의 고령화, 여성농업인, 일손부족 등으로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동살포를 희망하는 농가는 마을별 영농회, 작목반 등 공동살포 대행단체를 구성해 해당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공동살포를 대행하는 단체에는 포대(20kg)당 1000원의 공동살포 비용이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의 개량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공동살포 확대를 위해 지원단가를 23년 800원에서 24년 1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신속히 살포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한기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Opinion

■ 칼럼

세계 문자 한글의 장래〈5〉

신 부 용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외래어표기법

외래어표기법이란 이름은 일본에서 배워온 것 같습니다.

모두 50개의 음절로 이뤄진 일본 문자로는 외국어 발음을 비슷하게나마 흉내 내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아예 그들이 통상 쓰는 '히라가나'가 아닌 '가타카나'로 표기해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 '외래어는 가타카나로 표기한다'가 일본 외래어표기법의 기본 조항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외래어는 우리처럼 자국어가 된 어휘가 아니라 모든 외국어를 뜻합니다.

이렇게 사정이 전혀 다른데도 선각자들이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면서 일본의 외래어표기법이란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마도 견문과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저마다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정이나 관례가 있지만 대개 외국어 어휘별로 표기법을 결정해 사전에 올립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우리말 '오빠'를 'oppa'로 사전에 등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자주 사용해서 우리말이 된 어휘만 외래어로 규정하고 표준 표기법을 정해 사전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 외래어표기법은 없애고 그 대신 외래어가 됐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면 됩니다.

재론, 삼론하지만 외국어는 가능한 한 원어 발음을 살려 표기할 수 있도록 언어별 외국어표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외국어표기법

외국어표기법을 만드는 목적은 외국어를 우리 글로 표기해 발음을 배우고, 나아가 언어를 익혀 원어민과 소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한글로 외국어의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글이라도 다른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가장 가까운 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영어 p는 발음이 상당히 가까운 'ㅍ'으로 표기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하지만 f도 가장 가까운 표기가 'ㅍ'이기 때문에 p와 f 모두 'ㅍ'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외래어표기법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발음을 하나의 글자로 표기하면 두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므로 언어 습득에 지장이 생기고 원어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포기해야 합니다.

발음 표기의 2대 핵심 요건은 정확성과 차별성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정확하게 표기하되 두 발음이 비슷해 표기가 같아질 때에는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서로 다르게 적음으로써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p와 'ㅍ'은 발음이 비슷하므로 그대로 쓰고, f의 새로운 표기로는 'ㅍ゜' 처럼 특수 부호를 첨가하거나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들면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훈민정음이란 훌륭한 모체가 있으므로 이로부터 빌려 '순경음(脣輕音) 표(ㆄ)'을 쓰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습니다.

'ㆄ'은 'ㅍ을 가볍게 발음하라'는 뜻에서 음가가 없는 'ㅇ'을 붙여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아래위로 붙여 쓰는 것을 연서(連書)라고 하며 합자(合字)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서로 쓰면 글자의 높이가 높아지고(예: 홇), 그렇다고 작은 글씨체로 쓰면 읽기에도 어려울뿐더러 새로운 글자체(폰트)를 만들고 자판도 고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필자가 연서 대신 합자의 다른 방법인 병서(竝書), 즉 옆으로 붙여쓰기를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렇게 쓰면 'ㆄ'가 아니라 'ㅇㅍ'이 되며 글자체나 자판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합자의 매력

합자는 마치 여러 원료를 적당히 혼합해 원하는 성분을 만들어 내듯이 적당한 자모를 조합해 원하는 발음을 표기하는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표기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럴듯한 음가를 구현할 수 있어 기본 자모의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훈민정음 글자가 로마자 등 다른 글자와는 달리 모든 글자가 각각 고유의 음가를 갖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자는 이런 기능이 없어 단어마다 읽는 법을 따로 익혀야 합니다.

일테면 the와 think의 'th'는 발음을 단어별로 따로 배우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합자의 매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합자의 원리를 역으로 적용하면 'ㅋ'은 'ㄱ'과 'ㅎ'의 합자이므로 'ㄱㅎ'으로 대치하고 기본 자모에서는 빼도 됩니다.

그리하여 기술적으로는 한글 자음 14자를 10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주시경 선생이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놀랍게도 기본 모음도 10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각각 10개로 굳어지면 자모의 활용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대구시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민 안중 없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가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요금을 지난 13일부터 인상했다.

고물가 등의 서민 가계 부담을 이유로 지난 12월 한 차례 연기했지만, 한 달 만에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서민 가계 부담이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대구시의 선택은 동일했다.

대구시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과 살림살이는 안중에 없는 것이 분명하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하물며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240원에 불과하지만,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높은 상승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고, 올해는 새해벽두부터 상수도요금과 함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옥죄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던 시민공청회는 공무원들로 채워진 요식행위였고, 시민의견수렴절차는 허울뿐이었다.

대구시는 앵무새처럼 낮은 원가회수율을 외치지만, 이는 코로나 이후 급격히 감소한 이용인원과 최근 고환율과 에너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다.

요금 인상이 당장의 재정지원금 지출을 일부 만회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수송분담률 향상에 기여할 수는 없다.

원가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요금만 인상하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외면하게 된다. 낮은 이용인원으로 인해 원가회수율은 떨어지면 또 요금 인상 카드만 내놓을 것인가.

바로잡아야 한다.

손쉬운 방법인 요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체질 개선과 함께 공공성과 기후위기시대 대응을 위한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할 때이다.

민주당 추진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대구시의 옛 경북도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이 4월 말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는 문재인정부 시절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대구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추진된 사업이다. 이미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도심에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접근을 줄 수 있는 특구 사업이다.

도심융합특구가 정착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청년들의 유입과 더불어 경제 활성화 등 성장 거점의 네트워크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대구민주당이 강력하게 건의하여 2020년 12월에 대구와 광주가 선정되어 대구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이 이제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대구시는 본격 궤도에 오른 만큼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대구미래와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대 신성장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기 위한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다양한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에 대구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재점검하고 사업시행자, 협의체 구성 등 세심하고 정밀한 작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대구의 도심융합특구가 지방 도시개발의 성공적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사진 한 컷

울진에서는 갈매기도~ 대게를 먹는다!!

귀하디 귀한 울진대게..

지난 14일 울진 대게 위판이 끝난 후포항에 갈매기가 살포시 내려앉아 귀하디 귀한 울진대게를 먹고있다.

신문 맛이 달라지면 신문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일보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숙
편집인 김 성 용
부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 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되는 군위
함께 만들어가는 군위
하늘길 열린 공항도시 군위